



제목	Emperor and Priest: The Imperial Office in Byzantiu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3. 10. 16.
저자	Gilbert Dagron Jean Birrell(옮김)
출판도시	Cambridge
페이지수	337
ISBN 또는 ISSN	978-0521801232

**내용 요약**

이 책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에 대한 연구서이다. 황제교황주의란 평신도인 황제가 교회에 대해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교회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황제교황주의는 비잔틴제국의 제정일치의 통치원리가 되었다. 중세 서로마제국은 멸망하여 여러 개의 세속 왕국으로 분해되고 영적인 문제는 교황에게 맡겨진 반면, 동로마제국 비잔틴은 왕권 신수설에 기초한 제국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비잔틴제국의 황제는 사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섹션은 '원칙(The Principles)', '황제(The Emperors)', '성직자(The Clergy)'라는 제목 하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비잔틴제국의 황제와 정교회의 관계, 기독교로의 개종이 로마 황제의 통치구조에 끼친 영향을 논의한다. 또한 저자는 비잔틴적 세계관에서 구약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하여 비잔틴 황제들이 자신들을 구약성경에 비추어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성직자들이 황제교황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는 점도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황제교황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을 뿐이며, 그리스도 이후로는 그 둘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